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부활로 열어놓으신 세상 성경: 마가복음 16장 9-18절

Tag:

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11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16:9-18)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후대에 첨가된 듯하다.

마가가 맨 처음 기록하고 전파한 곳에서는 위 본문들이 빠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후 위 본문들이 그 뒤편에 추가 되었다. 아마도 마가의 제자들이 마가가 완결하지 아니한 본문에 추가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서 추가했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턱 없이 간결하게 끝을 맺고 있다.

이처럼 네 복음서가 약간씩 다르게 묘사된 것들, 또는 어떤 것은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특히 복음의 진정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서로 입을 맞추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가 자신이 경험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는데, 어떤 것들은 약간씩 관점이나 편집의도가 다르게 읽혀지는데 그것은 오히려 저자들이 함께 모여서 팩트를 체크해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오히려 요즘 우리나라 뉴스들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받아쓰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아예 역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원래 통치자는 항상 자기 입맛에 맞도록 미화시켰지만, 자신들은 민중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신들이 훨씬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어서 빨리 팩트에 기초한 진정한 근현대사가 완성되었으면 한다.

원래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난다.(막16.1-8)

안식후 첫날(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오늘은 5:50)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좋은 향료를 사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자 함.

그들은 가는 도중에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러 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을 걱정하였다.

그러나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긴 흰옷을 입은 젊은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나 이 여인들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도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어떤 여인이 자신이 무덤에 온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입을 막았을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확인했으나 빈 무덤을 보고 의아해 하며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울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으나 베드로는 믿지 못한다.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약간의 차질을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떠나야 하는 일정을 잊어버리고 지체하게 된다.)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구약성경을 들어서 조목 조목 설명하셨다. 두 제자는 급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역시 사람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0제자가 함께 모여있는 중에 나타나셨다.

심지어는 배가 고프신 듯이 물고기를 잡숫기도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때는 도마가 없어서 도마는 믿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적하셨다. 믿음이란 명확하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다. 그것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닌, **절대자**시며, **생명의 주관자**시며, **죽음을 이기시는** 완전하신 신에 대한 믿음이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런 **논리정연**하고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건들과 기적들**, 그리고 **탁월하실 뿐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와 힘과 타당성을 지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가치관은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듣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였다.

더구나 그 날 하루만 해도 너무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들까지 합한다면 그야말로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듯해야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그러니 어떤 제자는 자신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하고 헤갈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조심스러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을 것이다. 왜냐면 이미 뿔뿔히 흩어지고 제자들도 몰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으니 말이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심지어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 두루 다니시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3:19절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음부에까지 내려 가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과연 유령이신가, 진짜로 부활하셨는가? 헤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당시로서는 민심이 흥흥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후에 제자들에게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고자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로 모이라는 당부의 말씀도 깨끗이 잊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였다. 제자들은 강력하게 몽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복음은 이제 정말 복음이 되었다. 죽음까지 이기셨으니 그야말로 상황이 180도 변했다는 말 정도로는 결코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다.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되었다. 창조세계의 새로운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다. 사실 그 어떤 표현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

아마 제자들도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후에 성령을 받고나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부활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활사건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아마 16-18절 말씀이 이런 분위기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분명할 것이며, 복음의 효과가 사람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다.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
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심지어는 기적과 새로운 차원의 삶, 새로운 존
재로서의 삶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다는 점을 오
늘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

17-18절 말씀은 당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 보다는 앞으로의 우
리들의 믿음생활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부활 신앙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Tag: 제자훈련

1. 구원의 복음

2. 부활의 증인이 되자.

-부활 사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자.

-부활 사건의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믿어야 한다. 증인이 많을수록 증거는 확실하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나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킨다.

-부활신앙이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나의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등 여러 가지 창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3. 부활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힌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매이다.

-항상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부활 사건은 성령강림과 성령충만의 기폭제다.